

지속가능한 녹색 ODA 전략 구축의 필요성

녹색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공정개발원조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OECD DAC를 중심으로 공적 개발 원조를 개편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 중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분야의 위상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1992년 최초로 대외원조를 시작한 이래 한국의 ODA는 그 규모와 내용면에서 크게 신장되고 있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정식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녹색 ODA 비중을 2020년까지 30%로 확대 할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ODA 사업은 수혜국의 도로, 교통 분야에서 기획, 발굴 단계부터 추진해야 효율성이 높다. 도로, 교통 등의 개발원조에서 단순히 친환경적 기자재를 제공하는 일회적인 녹색화를 지양하고, 사업의 기획, 발굴 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전략으로 ODA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정기술은 지속가능한 전략의 한 방법으로,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 공동체의 정치,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이다. 라이프스트로, 수동식 물 공급펌프 등 다양한 적정기술이 개발되어 환경문제와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더불어 'ASEIC'은 유럽과 아시아의 친환경성장을 증진시키고자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기획부터 실행단계까지 현지주민들과 직접 협력하는 방법으로 지속가능 개발 달성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빈곤층을 위한 에코이노베이션(친환경적정기술)’ 사업이 있다. 저개발국 현지의 에너지부족과 환경문제 등의 취약성을 확인한 후, 친환경 적정기술을 통해 현지주민의 실질적 필요에 대응하는 방법의 순서로 사업이 진행되며 사회적 개발과 빈곤감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술 메커니즘 이행기구인 기후기술 센터-네트워크(CTCN-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에 가입했으며, 기후변화 대응기술 사업을 활발히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녹색 ODA사업이 확대될 것이고 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조직은 많은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환경 분야 시민 사회단체들의 국제개발협력 관심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녹색보다는 성장 우선을 녹색성장으로 왜곡 포장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규범을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기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녹색 ODA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녹색 ODA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개발도상국 녹색화 사업 발굴, 인간투자 유도, 녹색 에너지 분야 국가 위상 제고 등 녹색 ODA의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후변화정책연구소_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녹색ODA 운영체계 구 축방안

(<http://www.onkweather.com>) " 녹색 ODA 성공에는 개도국에 맞는 적정기술 제공이 관건'